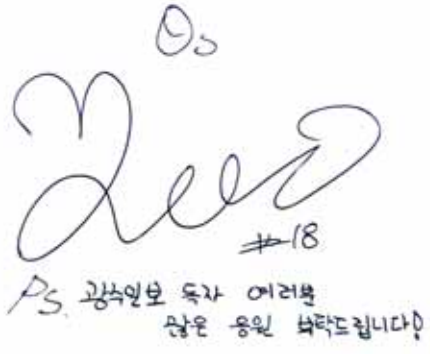


“멀리 돌아온 꿈의 ML... 선발 향해 직구 승부 해야죠”

윤석민 전화 인터뷰



YOON

볼티모어 오리올스

모처럼 '석민 어린이'가 됐다. 18번 유니폼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카메라도 들이댔다. 다른 말이 필요없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그리고 YOON이 새겨진 유니폼 사진을 옛 동료들에게 보내고 한참을 웃었다. 팬들이 등글등글 옛된 얼굴의 에이스에게 지어준 별명처럼 '석민 어린이'가 된 윤석민이었다. 볼티모어에서 새 출발하는 윤석민, 그의 추억과 각오를 전화로 들어봤다.

긴 기다림 끝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볼티모어 투수 윤석민이 되던 날. 잠들기 전 머릿속에 그린 윤석민은 멋진 투수가 아닌 행복한 투수 윤석민이었다.

“세상에 정말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런 상상을 했다. 마운드에서 그라운드에서 야구를 즐기며 좋아하는 내 모습을 그렸다.”

V10에 빛나는 명문 구단의 에이스, 파란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국가대표 우완 에이스 그리고 빅리거라는 이름도 얻었지만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 험난했던 야구선수 윤석민의 인생, 그래서 그는 마운드에서 위풍당당한 모습보다는 행복한 얼굴로 공을 던지는 자신을 그렸는지도 모르겠다. '비운의 에이스'라는

단됐고 윤석민은 외롭게 사직 마운드에서 서 있었다. “체인지업 사인이 났다. 몸이 잘 되어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부상 후 손가락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다. 괜히 불안했는데 순간 공이 빠지는 게 보였다. 속으로 제발 제발을 외쳤는데...”

어렵게 돌아온 마운드였지만 그 사건 이후 도망치듯 다시 마운드를 떠나야 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괜찮아졌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급했다.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 몸도 마음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에 맡겼다.”

바다까지 추락했던 2010년이 있었기에 윤석민의 2011년은 더욱 극적이었다. 이해 윤석민은 2.45의 평균자책점으로 17승5패1세이브를 기록했다. 178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국보 투수' 선동열에 이은 20년 만의 4관왕 그리고 MVP가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

“MVP를 땀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2007년 첫 승도 생각이 많이 난다. 그해 처음 선발로 들어갔는데 3경기 동안 승을 못하다가 4경기 만에 첫 승을 했다. 그게 선발 첫 승이자 프로 첫 완봉 승이었다. 그 승리가 기억에 남는다.”

KIA를 넘어 한국 대표 투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2011년, 윤석민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이해를

“라커 내리쳐 손가락 골절상
프로답지 못했던 행동
홍성흔·조성환에 사구 악몽
치유해줬던 건 시간”

“최고의 순간은 2011년 MVP
2007년 첫 선발승 기억에 남아
KIA에서 받은 사랑과 기회
빅리거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순탄치 않던 야구 인생이었다. 그래도 “KIA라는 팀에 왔기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고 성장할 수 있었다. 오히려 에이스라는 이름이 부족하고 미안했었다”고 말하던 윤석민이었다.

프로 3년차였던 2007년 윤석민은 3.78의 평균자책점을 가지고 최다패(7승18패) 주인공이 됐다. 유난히 득점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서 빈번히 패전 투수가 됐다. 그러나 윤석민은 최다패의 아픔을 딛고 2008년 평균자책점(2.33) 1위에 올랐다. 14승5패1홀드라는 기록과 함께 팀의 에이스로 우뚝 서는 해가 됐다.

2009년에는 우승의 감격스러운 순간도 만끽했지만 2010년 야구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6월 SK전 선발로 나왔던 윤석민은 경기 후 라커를 오른 손으로 내리치면서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나중에 차에 가셔야 손가락이 부러진 걸 알았다. 내가 빈번히 승리를 끊었다. 그런 게 이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있었다. 사람들은 에이스라고 하는데 나는 연습이나 끊고 앉아있고, 2009년 우승할 때도 큰 활약을 못했기에 마음에 짐이 있었다. 억지로 우겨서 9회에도 올라갔는데 아무리 하지도 못하고 내려왔다. 내담지 않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다. 아프고 슬픈 기억이다. 프로답지 못했다.”

한동안 마운드를 떠나있어야 했던 윤석민. 그의 악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둘러 복귀를 해야 했던 윤석민에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롯데 홍성흔(현 두산)이 윤석민의 공에 맞아 손등이 골절됐고 얼마 후 사직 원정에서는 조성환이 윤석민의 공에 머리를 맞았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롯데의 주축 선수들이 잇달아 윤석민의 사구에 부상을 당하자 사직구장이 술렁였다. 한동안 경기가 중

결으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구단이 허락한다면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윤석민은 KIA에 잔류했다. 결과적으로는 2년의 부진과 함께 아쉬운 선택이 됐지만 윤석민은 KIA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

“그때는 내가 착했던 것 같다”고 웃던 윤석민은 “WBC이후 해외에서 간간히 연락이 왔고 2011년도 잘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지만 포스팅이라는 게 조심스럽기도 했다. 또 구단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고집만 피우면 좋지 않을 것 같았다.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윤석민이 탄생하고 성장한 곳이다. 팬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도 받았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팀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FA 자격을 얻기까지 걸린 2년. 윤석민은 2011년의 명성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그만큼 볼티모어 유니폼을 입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늦어졌던 계약, 비자발급 문제 등으로 지난 16일에 겨우 빅리거 마운드에 섰다.

“오래 기다렸던 시간이라 많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마운드에 오르니 무뎠었다. 야구를 하면서 항상 쉽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그렇다. 비자가 발급돼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폭설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됐고, 비도 잘 오지 않더니 두 번째 등판을 앞두고는 비가 오더라(웃음). 어떤 자리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우선 빅리거에 서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선발투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KIA에서 프로답지 못한 모습도 보였고 실수도 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 그런 좋지 못했던 모습 잊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6일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데뷔전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10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행운의 승리투수가 된 윤석민.



SINCE 1989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